

최종편집 : 2021-10-19 11:10 (화)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f t y v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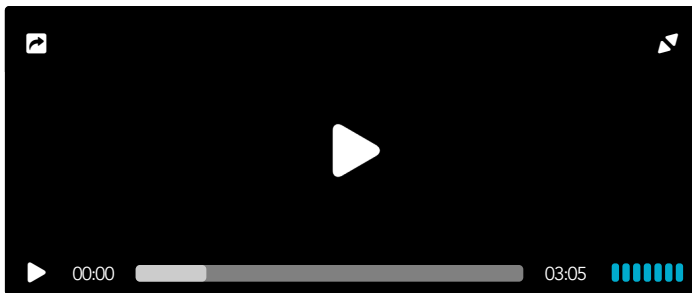
[홈](#) > [불교](#)

천리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 "부처님 당시를 떠올려요"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07 14:12 | 수정 2021.10.08 14:58 | 댓글 0

[가](#) [가](#)


수행자들 쉴 곳 내어준 불자..."부처님과 천오백 비구 보는 듯"
상월선원 108 천리순례단, 모레(9일) 순례 중간 기착지 '해인사' 도착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걷기 순례를 통해 부처님 당시의 '출가 정신'으로 돌아가 불교 중흥을 이끌겠다는 원력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 삼보사찰인 송광사에서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는 길 위의 고행은, 이를 지켜 보는 불자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불심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최신뉴스

- 경제 |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73명, 이틀째 1천명대...
- 사회 | 검찰, 성남시청 3번째 압수수색...문화재청서 대...
- 정치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 사회 |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재판
- 사회 | 서울 298명 신규 확진...107일 만에 최소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
- 2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상습성 인정'..."
- 3 노인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
- 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
제권 추진 박차
- 5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 대
장정 마침표...통도사에서 회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

기자

사찰에서 사찰로 향하는 길은 산중을 내려와 시중으로 이어집니다.

가사 장삼은 도로에 쓸려 해지고 땀에 절었지만, 화두 행선에 의지한 수행자들은 말간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앞으로 걷고 있지만, 정신은 부처님이 길 위를 맨발로 걸었던 것처럼 출가자 본연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범해스님 / 조계종 포교원장>

“(부처님께서)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열반에 드신 것처럼, 한국 불교도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출가인들이 또한 불교를 믿는 모든 분들이 마음가짐이 있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동트기 전 새벽, 순례자들의 고행길을 마주한 한 불자는 삼보를 향해 걷는 수행자들의 모습에 감격해, 순례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터를 선뜻 쉼터로 내어줬습니다.

<자승스님 / 상월선원 회주>

“새벽녘에 (쉬어갈)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사부대중의 행렬이 끝날 때까지 합장반배로 예경을 올리는 불자의 표정에는 신심이 넘쳐납니다.

<정이숙 / 함양 알뜰주유소 운영>

“천오백 비구가 앞에 부처님이 서서 앞에서 뒤에 재가자들이 따르고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다른 것은 더는 없어요. 항상 지금도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이 지나 오시지 않는가. 큰 스님이 바로 부처님 아니에요 그죠? 예 부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몇 천년 지나면 지금 이 시절이...”

길 위에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과 닮아가려는 순례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자라나는 듯합니다.

6 경북 16개 사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경북도 '지방소멸'



7 오세훈, 전임 사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관련 단체 반발



8 [코로나19]부산 중학교 집단 감염 등 40명 확진



BBS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사산'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NEW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윤재웅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부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대로 살아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니르바나의 세계에, 극락의 세계에서 잘 살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다니신 것이잖아요.”

108 천리길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세상에 깊이있는 깨달음을 전한 부처님과 눈 밝은 제자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오도재 숙영지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연꽃밭을 걷는 모습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반대
0

당산만안본뉴스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 73명, 이틀째 1천명대...접



검찰, 성남시청 3번째 압수 수색...문화재청서 대장동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 상발사체 발사"



법원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재판



서울 298명 신규 확진... 107일 만에 최소



김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